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첨단산업 집중육성

“

오늘날 국가간 경계가 무디어지고 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지만
기술 분야의 장벽은 갈수록 견고해져 가고 있다.
독자적인 원천기술의 확보야말로 국가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절대적 명제이기 때문이다.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062)607-2001 jypark@provin.jeonnam.ac.kr

”

지금 세계 각국은 21세기 성장의 원동력이 될 IT, BT, NT 등 첨단산업의 핵심기술 주도권 확보와 고부가 원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총성 없는 치열한 전쟁을 치루고 있다. 1등이 아닌 2등은 국가간, 기업간 경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첨단기술을 독식해왔던 선진국들과 후발 국가들간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자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원천 기술보호를 위해 국가안보적 영역에서 다루고 있기도 하다.

오늘날 국가간 경계가 무디어지고 무역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지만 기술분야의 장벽은 갈수록 견고해져 가고 있다. 독자적인 원천기술의 확보야말로 국가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절대적 명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도입,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OEM방식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이제 그 한계에 도달했다. 지금까지 기술개발없이 외국에서 산 부품을 사들여 이를 조립해 단기간에 이익을 보고 수출을 하던 시대의 기억을 지우지 못한다면 국가경쟁력 확보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예로 우리나라가 모바일분야에서 뛰어난 응용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CDMA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해 미국의 퀄컴사가 최대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경제가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도,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끊임없이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의 절대 부족이 그 원인이다.

제조업 임금의 거의 미국수준에 육박했고 노동 집약적 산업은 고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은 실업의 증가로 이어지고 내수부진에 따른 침체의 악순환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3D업종의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들 대신하여 자리를 채우고 있다.

우리에게 비전과 희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보다 지식과 정보, 기술이 부족했던 시대에도 우리 선조들은 뛰어난 창의력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이룩해왔고 민족의 생존을 유지시켜 왔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고장 화순의 고인들은 청동기시대의 뛰어난 토목과 건축기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선조들의 장인정신이 결합된 결정품으로 수천년의 비와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있다.

세계 해전사의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순

신의 23전 23승은 결코 신화가 아니다. 거기에는 선조들의 창조정신과 탁월한 기술, 그리고 과학이 접목된 거북선이 있었다. 오늘날 조선산업 세계 1위의 위치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거북선이 증명하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과학이 발달되었던 서구보다 몇 백년 앞서 활자를 이용해 직지심경을 찍어냈고, 고려시대에 빛어진 청자의 색깔은 현대의 기술로도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뒤통에는 그 같은 창조력과 집념의 혼이 고스란히 흐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뒤통에 담겨져 있는 창의력을 끄집어내어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도에서는 국가적 노력에 뒤지지 않도록 기술개발을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 TIC, RRC, BK21, 산학연 중심대학 육성에 134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소재산업, 우주항공, IT 등 미래 첨단산업을 선택하여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읍촌지방산업단지 내에 전남신소재산업 화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신소재 및 정보소재 산업을 키워내기 위한 기반도 확실히 다져 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표 / 준 / 논 / 단

위한 정책과 대안들이 산업적 영역에만 국한되어 선 안 된다. 신자유주의 돌격에 휩쓸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농촌을 잊고 농촌의 문화와 뿌리를 도외시하며 생명산업으로서 가치를 무시한 채 경제논리로만 농업을 생각한다면 이 나라 미래는 없다. 농촌에도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한다

전남은 소외와 가난의 대명사로 불리어 왔다. 반면에 아껴놓은 땅이라는 거꾸로의 소리도 들린다. 전남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한국적인 곳이며 깨끗한 공기와 오염되지 않은 물, 비옥한 옥토 등 최첨단 산업과 친환경 농업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여건을 십분 활용,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경제를 살리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자 한다. 또한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불고 있는 웰빙 바람에 맞추어 농촌을 농촌답게 다듬어 도시와 농촌간의 단남을 통한 상생의 길을 열어갈 계획이다.

전남의 변화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는다. 서남해안 레저복합도시 건설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광양단권과 대불산단은 공항과

항단 등 최적의 교통과 물류체계를 갖춰 기업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부족했던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도내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간선망을 구축해 가고 있다.

여기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려는 도민들의 의지와 각오가 대단하다. 기업을 유치하려는 열망 또한 뜨겁다.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앞장서 싸웠던 이미지들이 작용하여 과격하다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으나 절대 과격하거나 배타적이지 않다. 넓은 들판과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산들은 호남사람들을 유순하게 만들었고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심성을 키워냈다.

우리 전남은 산업, 농업, 관광 등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담아낼 충분한 조건과 공간. 그리고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 조건들을 이용하여 가능성을 키워내고 공간을 채우기 위한 도민들의 열정 또한 대단하다.

아껴 놓은 땅! 전라남도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다

